

MK BLOSSOMER

김영철 양선나 MK 교육선교사



10 월 기도 제목

- 열정이 앞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학생들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텐산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에 걸리는 학생과 교사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저희 부부와 자녀들이 서로 아끼며 건강한 가정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주면 벌써 1사 분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텐산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교사분들과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학교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좋을지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텐산 학교가 비교적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개인적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축복도 있습니다.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면서 더 알게 되는데, 이번에 초대 한 학생 두 명은 자매입니다. 부모님은 선교지에 계시고, 자매 둘이 아파트를 얻어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 후에 삼겹살 남은 것을 싸줬는데, 언니가, "우리 동생 월요일 도시락 싸주면 딱 되겠네요." 하는 말에 저희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어른인 저희도 삼시 세끼 걱정 때문에 매일 도시락을 싸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학생들이 학업에, 살림에, 도시락까지 싸야 하니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선나 선교사도 어려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어린 동생을 돌보며 지냈는데, 그때와 오버랩이 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주님께서 이 두 자매도 이 시간이 힘든 시간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거름이 되어서 나중에 주님을 위한 귀한 열매를 맺길 소망합니다.

이곳의 코로나 상황

1분기를 마치면서 학교 차원의 기도 제목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텐산 학교의 코로나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8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선생님 한 분은 코로나로 인해 자가 호흡이 어려워져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차도가 있어 다행입니다. 학교의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입원하신 선생님이 건강히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추석 맞이

텐산 학교는 한국 학교가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한국 추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학교 건물 안에 들어서면 보이는 게시판에 "추석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라는 문구도 있었고, 초등학교의 어떤 반에서는 송편도 만들고 산적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른 나라 친구들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MK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정체성 혼란인데 이렇게 학교 커뮤니티 안에서 한국인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같이 축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감사가 넘치는 추석이었습니다.

텐산 학생들과의 교제

코로나로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학생들을 집에 초대해서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학생들이 놀만한 장소나 할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방과 후에도 학교 수업이 너무 늦게 끝나서 놀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집을 더 오픈해서 학생들이 편하게 와서 지낼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학생의 방문

김영철 선교사는 매주 목요일에 한국어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이 계신데 목요일에는 나오시기 어려워 그날만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수업 중에 12학년 외국 학생이 수업을 하는 반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A 대학에 합격했다고 기쁨을 나누려 온 것이었습니다. 수업 중이어서 많이 축하해 주지는 못했지만, 그 학생을 비롯하여 저에게도 일상의 감사와 격려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양선나 드림

빌립보서 4: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추위와 밤운전

최근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해서 학교 이벤트가 연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가을이 없고 바로 겨울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첫눈이 왔고, 타이어도 겨울용 타이어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특히 눈길과 밤 운전 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밤 운전에서는 차량들이 라이트를 위로 향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눈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